

주간기도정보

2026. 5. 1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기도 자료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004개 군인교회를 깨워라”

군선교 연합 조찬예배… “군선교 위기 속 교단 초월해 청년 살리자”



최근 한국 군선교 현장은 ‘조용한 위기’를 지나고 있다. 장교 지원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병영 문화도 급변하고 있다. 매년 약 20만 명의 디지털 세대 청년들이 낯설고 고립된 군생활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군종 목사와 군선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교회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기독교군종교구, 군종목사파송교단이 주관하는 한국교회 군선교 연합 조찬예배가 지난 13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드러졌다. 이날 예배에는 군종목사단, 군선교사들, 파송교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인교회와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며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권위영 목사(예장통합 부총회장)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는 한 희망의 불씨는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선포했다. 권 목사는 이 힘든 시기를 돌파하는 핵심이 “겉보기에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무는 은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낯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생명력 넘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군선교 현장에는 약 250명의 군종목사와 약 500명의 군선교사, 약 6만 명의 한국기독교군인회(KMCF) 회원들이 전국 부대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에 걸쳐 세워진 1,004개의 군인교회가 그 사역의 거점이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간부 지원율마저 감소세를 보이면서, 군선교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군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함께 품었다. 구체적으로는 1,004개 군인교회의 영적 부흥,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의 영육 간 강건함, 군목 파송교단과 유관기관의 연합 사역,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도와 선교비로 군선교를 후원하게 해달라는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간구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을 초월한 연합의 자리이기도 했다. 문장옥 목사(예장통합총회 국내외군특수선교처 총무)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교단을 넘어 하나 된 연합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군종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모두가 결국 기독교 군종교구라는 커다란 한 가족인 만큼, 아낌없이 지원하며 연합회와 굳건히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출처: 기독교일보, 기도24·365 종합).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2:3-4)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요한계시록 19:13-14)

하나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긴장과 고통 속에서도 군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군선교 현장은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듣습니다. 이제 이 위기 앞에 군선교 현장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을 일으켜 주소서. 이 일을 섬기는 수만의 군선교 사역자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굳세게 붙드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대장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 선교완성을 향해 진군하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2. 북한을 위한 기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과 좋은 개발자인 줄 알았다”... 북한 ‘가짜 직원’의 미국 기업 침투

원격근무 악용한 북한 조직, AI 신분 위장까지 활용



미국 기업들의 원격 근무 확산을 틈탄 북한 관련 조직의 사이버 침투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 운영을 도운 미국인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기업이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을 자택에 모아두고 북한 관련 인력의 원격 접속을 지원한 혐의로, 평범한 가정집이 사이버 거점으로 악용된 것이다.

북한 관련 조직들은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까지 활용하며 신분 위장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업에서는 AI로 작성한 이력서와 위조된 얼굴 영상을 이용해 화상 면접을 통과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들은 실시간 AI 번역과 답변 도구를 활용해 기술 면접과 코딩 테스트까지 수행하며 기업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례에서는 단순 취업 사기를 넘어 기업 내부 정보 탈취와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 원격 개발자로 채용된 인력이 장기간 정상 직원처럼 근무하며 신뢰를 얻은 뒤 핵심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정체가 드러나 해고 통보를 받자 내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위협이 커지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로펌 윌슨 손시니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식 경고문을 배포했다. 윌슨 손시니는 애플과 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의 기업공개(IPO)를 자문해온 대표적 로펌으로, 북한 관련 조직들의 활동이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로펌은 특히 ▲AI·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원 위조 ▲원격 근무 구조 악용 ▲노트북 농장 운영 ▲기업 내부 데이터 탈취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을 핵심 수법으로 지목했다. 일부 조직은 정상 직원처럼 수개월 동안 근무하며 클라우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윌슨 손시니는 이번 문제가 단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인사(HR), 채용, 급여 지급, 대북 제재 준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이 북한 관련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사·보안·법무 부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펌은 기업들에 대해 화상 면접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장비 배송 주소와 실제 접속 위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최소 접근 권한 원칙 적용과 비정상 로그인 탐지, 외부 저장장치 사용 제한 등 내부 보안 통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조직들의 활동이 단순 외화벌이를 넘어 글로벌 기업의 신뢰 체계와 공급망 보안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신원 위조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기업들이 기존 채용 절차만으로는 위험을 걸러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출처: VOA 종합).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22-24)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로마서 5:15)

하나님,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와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실상을 북한을 통해 보며 긍휼을 구합니다. AI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체제 유지를 꾀하는 북한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 북한의 유일한 소망은 유혹과 욕심으로 가득찬 옛 사람을 벗어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십자가 복음뿐임을 선포합니다! 범죄에 이용당하는 북한 영혼들의 심령에 복음을 선포하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소서. 이처럼 북한의 영혼들이 속히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마약 중독으로 무너진 다음세대 위해 교회가 함께 울다

수영로교회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3기 2회차 중보기도회 열려...



(재)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이선민 이사장, 양선영 소장) 제3기 2회차 중보기도회가 지난 13일 수영로교회 회락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중독으로 무너져가는 영혼들의 회복과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상처 입고 갇힌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회는 깊은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박형석 목사(수영로교회 부목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목으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

라며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야 61장 1-3절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며 “세상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또한 “약을 끊기 전에 먼저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시작”이라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상한 자들이 의의 나무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 선포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와 이선민 이사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의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선민 이사장은 “마약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회와 공동체가 연합해 무너져가는 다음세대를 살려내기 위해 함께 몸부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미 집사는 “아이들이 약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모이면 세상을 흔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며 “한 영혼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날 중보기도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절망 속에 갇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은혜의 현장이 됐다. 또한 참석자들로 하여금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매달 이어지는 중보기도회를 통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 중독으로 무너진 영혼들과 다음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3)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야고보서 5:16)

하나님, 이 땅의 다음세대가 마약으로 무너져가는 이 때에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와 부모세대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무릎으로 전쟁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간구를 통해 마약중독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 이 땅의 다음세대를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온에서 함께 부르짖는 한국교회의 눈물을 보시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